

‘초등학생 희망직업’ 의사는 4위로 하락...1~3위 무엇?

장래희망 1위는 초등 ‘운동선수’, 중·고 ‘교사’
초등생 장래희망 3위 유튜브 등 ‘크리에이터’
‘희망직업 없다’ 학생도 증가...“직업군에 관심”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장래 희망으로 관련 직군을 꼽는 학생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인 장래 희망이 없다고 밝힌 학생들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감염병 유행에 따른 진로 교육의 중단, 학생들이 구체적인 직업보다 특정 분야를 고려하는 경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지난 6월7일~7월20일 초6·중3·고2 학생 총 2만2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초등생 3위는 크리에이터...‘장래희망 없다’ 증가세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크리에이터’가 지난해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유튜브,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업을 말한다. 2020년과 지난해 4위를 기록했고 올해 3위로 상승했다. 1위는 운동선수로 작년과 같았다. 2위는 교사였다. 지난해 2위였던 의사는 올해 4위였다.

중학생은 교사, 의사, 운동선수가 순서대로 1~3위였다. 1~2위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같은 결과다.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가 2020년 10위, 지난해 8위, 올해 5위로 상승했다.

고교생은 1위 교사, 2위 간호사, 3위 군인, 4위 경찰관/수사관, 5위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로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 6위였던 공무원은 10위 아래로 밀렸다.

학생들이 장래 희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초등학생(50.3%), 중학생(46.4%), 고등학생(42.6%)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일’이 가장 꼽혔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직능연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온라인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래에 구체적인 직업·진로 희망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늘어나고 있다.

장래 희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19.3%, 중학생 38.2%, 고교생 27.2%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중학생(36.8%), 고교생(23.7%)은 증가, 초등학생(20.9%)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초 12.8%, 중 28.1%, 고 20.5%)과 비교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진로 체험 활동을 못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경 직능연 진로직업플랫폼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반영됐다”며 “학생들이 산업과 직업 변화로 (직업) 명칭을 선호하기 보다 직업군을 선호함에 따라 응답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희망 직업이 없는 경우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초 37.8%, 중 52.5%, 고 47.7%) 또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초 39.2%) 그렇다고 밝혔다. 고생이 희망하는 전공 계열은 보건(16.7%), 예술(15.9%), 교육(14.1%)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공학(19.9%)이, 여학생은 보건(22.4%) 계열이 1위였다.

한편 학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는 답변을 분류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종전 발표된 조사 결과와 일부 달라졌다.

직능연 관계자는 “희망 직업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분류화 작업을 수행했다”며 “올해 적용한 새 기준을 과거 조사 결과에 반영하다 보니 일부 순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교생 ‘졸업 후 창업 계획’ 2.9%...‘관심 있다’ 36%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고교생 비율도 상승했다. 창업에 ‘관심이 있음’과 ‘매우 관심이 있음’ 답변은 2019년 32.4%에서

2020년 35.9%, 2021년 35.1%, 올해 35.7%였다.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가 38.1%로 1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가 25.2%로 2위를 보였다.

졸업 후 창업을 계획 중이라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에 그쳤으나 2018년 1.5%, 2019년 1.9%까지 늘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 1.3%, 2021년 1.6%로 주춤했다. 올해 2.9%로 조사됐다.

졸업 후 창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학생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지원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 결과, ‘창업자와의 만남 및 멘토링 연계’ 41.5%, ‘창업 관련 정보 제공’ 22.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진로를 찾고자 학교에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진로 체험이 초등생(85.1%), 중학생(86.7%), 고교생(84.3%) 모두 1위였다.

2007년부터 매년 이뤄지는 이 조사는 진로교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교육 환경, 학생과 학부모·교사 인식 등을 조사한다.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볼 수 있다.

초·중고 학생 희망직업 변화

초·중고 학생 2만2702명, 2022년 6월 7일 ~ 7월 20일 온라인 조사

순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1위	운동선수	운동선수	교사	교사	교사	교사
2위	의사	교사	의사	의사	간호사	간호사
3위	교사	크리에이터	경찰관/수사관	운동선수	군인	군인
4위	크리에이터	의사	운동선수	경찰관/수사관	경찰관/수사관	경찰관/수사관
5위	경찰관/수사관	경찰관/수사관	군인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6위	요리사/조리사	요리사/조리사	공무원	군인	공무원	뷰티디자이너
7위	프로게이머	배우/모델	요리사/조리사	시각디자이너	의사	의사
8위	배우/모델	가수/성악가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요리사/조리사	경영자/CEO	경영자/CEO
9위	가수/성악가	법률전문가	뷰티디자이너	뷰티디자이너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10위	법률전문가	만화가/웹툰작가	경영자/CEO	공무원	보건·의료분야 기술직	요리사/조리사

자료: 교육부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등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m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